**교제와 나눔**

**\*\*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과 방문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ㆍ토요기도회:** 매주 토요일 07시 Teestube

**ㆍ디아코니축제** 음식바자를 위해 수고하신 교우들께 감사드립니다.

순 수익금: 1.516,70유로는 북한선교를 위해 사용됩니다.

**ㆍ9월 나라주일:** 오늘 예배 후 나라별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세요.

**ㆍ추수감사주일:** 10월 7일 주일, 연합예배, 성찬식

**ㆍ개업:** 이재완-장혜진(푸드정 프랑크푸르트점)

**ㆍ지난주 방문:** 홍종노-김소영

**ㆍ귀가:** 정규선

**ㆍ한국방문:** 김종권-유근임

**ㆍ생일:** 손민해, 황선우

**◆말씀일기 일정**

일/롬8:18-30 월/롬8:31-39 화/롬9:1-18 수/롬9:19-29

목/롬9:30-10:4 금/롬10:5-13 토/롬10:14-21 일/롬11:1-12

**◆114 운동-**하루**(1)** 한번**(1)** 말씀일기 & 성경 **(4)**장 통독

**(성경 200독 대행진: 147독)**

**◈예배위원 안내◈**

|  |  |  |  |  |
| --- | --- | --- | --- | --- |
|  | **9월 16일** | **9월 23일** | **9월 30일** | **10월 7일** |
| **예배기도** | 김좌겸 | 강일구 | 김평님 | 송인선 |
| **말씀일기** | 손교훈 | 단주현 | 박요셉 | 김성희 |
| **안내위원** | 신형만, 예배부 | | | |
| **헌금위원** | 박성호, 송인선 | | | |
| **애찬봉사** | 나라주일 | 밥상 셋 | 밥상 넷 | 밥상 다섯 |

**35-37호 2018년 9월 16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골3:14)

주일예배: 12:00 Fliedner Saal

유초등부예배: 12:00 Teestube

청소년부예배: 12:00 Teestube

토요기도회:07:00 Teestube

선교성경아카데미(MBA):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담임/ 손교훈 목사** Kyo-Hoon Sohn

☏ 02131-5249 186 HP. 0176-5779 1004

**교육/ 이재용 목사** HP. 0157-5346 6942

**교육/ 신동철 목사** HP. 0177-231 7003

**선교협력/ 이광열 목사** HP. 0157-7388 7498

1983년 5월8일 창립 뒤셀도르프 선교교회

**교회 홈페이지 duemission.de**

**교회주소Alte-Landstr. 179, 40489** **Düsseldorf**

**주 일 예 배**

오

인도: 손교훈 목사

|  |  |
| --- | --- |
| ※입례송/Eingangslied ……………………………………………………………………………  ※예배부름/Eingangsgebet …………………………………………………………………… | 다함께  인도자 |
| ※찬송/Gemeindelied ……………………… 9장2절 ………………….………… | 다함께 |
| ※신앙고백/Glaubensbekenntnis ………………………………………….................. | 다함께 |
| 성시교독/Wechselwort ……………….. 교독문110번 ……………............... | 다함께 |
| 찬송/Gemeindelied …………......………… 286장 …………………………… | 다함께 |
| 기도/Gebet ………........………………………………………………............................  말씀일기/Bibeltagebuch …………………………………………….............................  찬양/Chor ………………………………………………………………………………………… | 김좌겸 집사  손교훈 목사  찬양대 |
| 성경봉독/Text zur Predigt ….…………… 행4:31 …..….....……..……..……… | 인 도 자 |
| 설교/Predigt ....…..……..…… **사랑은 증언입니다** ....….....……..…… | 손교훈 목사 |
| 찬송/Gemeindelied …………….……… 505장 ……….………………………  합심기도/Gebet ……………………………………………………………………………  봉헌/Kollekte …………………………………………………………………………………… | 다 함 께  다함께  다 함 께 |
| 교제/Bekanntmachung …….....................................................…………................ | 다함께 |
| ※주기도송/Vaterunser ………………………………………......................…………… | 다함께 |
| ※축도/Segen ……………………………………………………………………...................... | 손교훈 목사 |
|  |  |

**※는 함께 일어섭니다.**

**◈ 손교훈 목사의 말씀일기** **롬7:14-25 '곤고한 사람' ◈**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24-25). 그렇다. 자신의 실상과 직면하여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솔직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붙들게 되고 감사하게 된다. 또한 역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게 된 사람은 자신의 내면에 여전히 깃들어 있는 죄의 뿌리를 생생히 보게 된다(17).

바울은 솔직한 자기 성찰을 통해 자신의 뿌리 깊은 죄성을 보았고, 그것은 시간이 갈수록 더해 갔다. 그의 초기 서신으로 짐작되는 고린도전서에서는 자신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고전15:9)라고 표현하는데, 중기 서신 에베소서에서는 자신을 “모든 성도 중의 지극히 작은 자 보다 더 작은”(엡3:8) 자라고 하더니, 후기 서신 디모데전서에서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딤전1:15)라고까지 고백한다.

얼핏 드러난 고백만을 보면 그는 더 큰 죄인이 되어 간 것 같다. 이것은 바울이 실제로 죄를 많이 지어서라기 보다는, 죄와 악에 대해 더 민감해졌다는 것이고, 그럴수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롬8:1), 즉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더 의지하게 되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파스칼이 말했던가? “자신을 의인이라 생각하는 죄인이 있고, 스스로를 죄인이라 여기는 의인이 있다”고.

오늘은 실컷 찬양하고 싶다. “곤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항상 나를 붙드시니…**주의 팔을 의지함이라**”(찬송가 406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맘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 때도 같이하사…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 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찬송가 407장).

**◈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돕는 곳 ◈**

▶스펙트럼 교회(이광열 목사)

▶'겨자씨' 모임(2세 및 2세 사역자 위해 기도 및 후원)

▶NRW 평신도연합회

▶유럽 기독교교육원: 어린이 연합 캠프, 청소년 연합 캠프(JC)

▶유럽 밀알 장애인 선교회(이명선 총무)

▶유럽 코스타(청년수련회) ▶유럽 크리스찬 신문(이창배 목사)

▶예장 유럽선교회 ▶우크라이나 임현영 선교사

▶장학 지원 ▶북한 선교 ▶디아코니 협력 후원

▶굶주린 이웃 돕기 (케냐 총게노 고아원, 이은용 선교사)

▶기타 구제 사업 ▶선교관 기금 마련